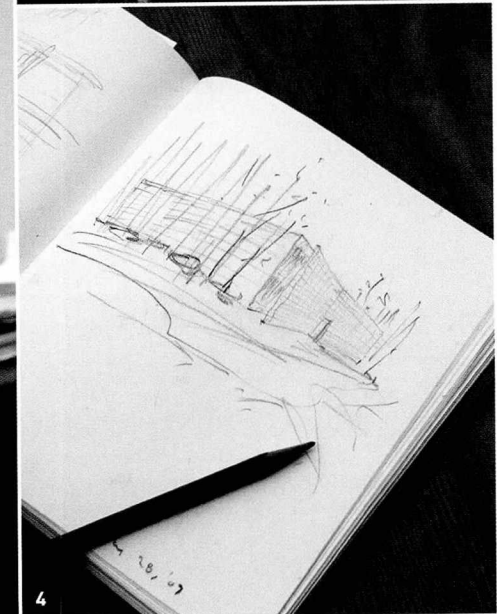


건축가 조병수

공간을 경험한다는 것

반포동에 있는 건축가 조병수의 사무실을 찾아갔을 때, 그의 개인 사무실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준비해 두었다. 통유리를 통해 시각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개방성, 클래식한 느낌의 원목 인테리어, 하지만 구획이 엄격하게 나뉘어 있는 공간 배치, 눈높이보다 약간 아래에 위치한 작은 화단. 조병수는 자신이 직접 지은 작업실의 배치로 이미 자신을 설명하고 있었다. 에디터 | 이기원 · 사진 | 노현우, 고하진





1 건축가 조병수의 작품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다. 2 작업실 내에 놓여 있는 통기타와 빈티지 가구. 3 잘 꾸며진 화단에는 초록 잎이 가득했다. 4 그의 노트에는 다음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들이 빼곡하다. 5 과거 '사간 갤러리'에서 지금은 명칭이 바뀐 '동인 갤러리'. 6 손수 설계한 그의 작업실은 자신만의 색채로 꾸며져 있다. 7 모던한 외관의 '영어 유치원'. 조병수의 아내가 직접 운영하는 곳이다.

세상 모든 건축가들이 다 그렇겠지만, 조병수는 특히 바쁘다. 10개가 넘는 프로젝트 도면들은 항상 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고, 강의를 위해 미국과 한국을 번갈아 다니느라 몸과 마음은 항상 분주하다. 하지만 이 남자는 느긋하게 말한다. “사적인 즐거움이 나 유희는 프로젝트하면서 찾는 수밖에 없어요. 얼마전에는 프로젝트 때문에 제주도에 1박 2일로 내려갔다 왔는데, 산책도 하고 스케치도 하고, 아침식사 하면서도 좀 보고, 설계 자체가 뭐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고 즐거운 일이나까 이런 생활이 힘든 것 같지는 않아요.”

그의 포트폴리오에는 미국 건축지 <아키텍처럴 레코드(Architectural Record)> 지가 세계 건축을 선도할 11대 건축물로 선정한 배재대학교 예술관이나 신사동의 ‘램프 빌딩’, 파주의 ‘스리박스 하우스(Three Box House)’ 같은 유명한 건축물들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 눈에 띄는 작품도 있다. 파주 ‘어유지 동산’, 용인의 다가구 주택 ‘솔마당 집’, 정신지체장애우의 생활 공간 ‘강화우리마을’ 같은 건축물은 이 사람의 시선이 조금 더 먼 곳을 향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건축가들이 갖춰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사회적인 책임감이나 도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살려면 돈도 벌어야 하고 창의성도 있어야겠지만, 최소한의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야 해요. 제가 몬태나주립대학을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립대학보다는 아무래도 사회를 위해 공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1970년대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사회적인 책임감이나 사회학적인 지식이 많이 중요했던.”

13년 전 그가 ‘조병수건축연구소’를 오픈하고 처음 맡은 작업은 달동네의 허름한 주택을 개조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 이후 부족한 예산을 자비로 충당하면서까지 애써 만든 파주 ‘어유지 동산’은 그해 미국건축가협회 상을 받으며 그의 대표작 중 하나가 되었다.

“어유지 동산은 일단 가운데 마당 공간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사회적인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뒀어요. 그런데 그게 공공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마무리 공사를 할 무렵에는 예산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기까지 했어요. 그게 너무 안타깝워서 재료 납품하는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반값에 도네이션을

받았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예산이 부족했죠. 그래서 결국 나머지는 우리 사무실에서 부담하고, 두 명이 보름간 밤샘작업을 하면서 그렇게 완성했죠.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생활도 훨씬 여유로워졌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꼈기 때문에 마음은 평안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슴속에 어떤 승고함을 지니고 사는 사람이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묻어나는 고상한 취향들. “골동품 보러 다니는 걸 좋아해요. 나무로 만든 가구들, 단순한 나무나 돌을 보러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요즘은 그리 전문적으로 듣는 건 아니지만 빈티지 음향기기를 찾으러 다니는 습관이 생겼어요. 아날로그적인 소리들이 좋더라고요. 세운상가나 용산 같은 곳도 자주 다니고, 이베이 같은 데서 부품을 사서 직접 조립해 보기도 하고. 그런데 나는 비싼 돈을 투자해서 듣는 건 관심이 없어요. 완전하지 않은 건 그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스피커는 다 AR스피커예요. 비싸지 않은 만큼 정말 좋은 음악을 듣기에는 부족하죠. 정말 훌륭한 음악을 듣고 싶을 때는 좋은 기기를 가지고 있는 친구 집에 와인 한 병 사 들고 가서 같이 듣자, 그러죠.”

트렌드와는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아무나 소화할 수 없다는 폴 스미스 빨레 안경을 끼는 감각, 순전히 그 구조적인 아름다움에 반해 좁고 불편한 로버 미니를 몰고 다니기도 하는 엉뚱함과 심포니는 번잡해서 싫어하고 독주곡을 좋아한다는 이 사람. 노래방에 가면 송창식의 ‘새는’을 즐겨 부른다는 이 건축가는 좋은 건축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빛소리를 듣고 마음이 착해질 수도 있고, 슬픈 게 더 슬퍼질 수도 있는, 아름다운 하늘을 바라다볼 기회가 생기고, 아름답게 느껴질 기회가 생기면 심성도 좋아지고, 공간을 경험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건축물. 그런 건물들이 좋은 것 같네요.” 이제야 알겠다. 건축가 조병수는 건축물로 시를 쓰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그의 눈앞에 닥친 프로젝트는 인사동에 위치한 <한국일보> 사옥을 허물고 재건축하는 일. 그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이 역사적인 건물이 조병수의 손에 의해 어떻게 다시 태어날지 기대하고 있는 것은 비단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만은 아닐 것이다. ☺